

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마스크 착용,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 등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
-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5만여 개 방진마스크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 ▲ (대기오염정보확인)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등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 (교육)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 ▲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하여 착용
- ▲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건강 관리 민감군(임신, 노약자,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미리 파악,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 ▲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붙임2〉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붙임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권구형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유훈 (044-202-8891) 이승환 (044-202-8895)



□ 추진배경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필요
- * 올 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 증가 예상

□ 주요 내용

- (미세먼지 경보 상황전파) 미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장 등 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발령(관심, 주의, 경계/심각) 상황전파 및 대응요령 안내
- (건강가이드 안내·홍보)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예방
수칙(퀵가이드) 제작·배포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 ▲ (대기오염정보확인)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등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 (교육)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 ▲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하여 착용
- ▲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건강
관리 민감군(임신, 노약자, 뇌심혈관질환 등)을 미리 파악,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 ▲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 대상 미세
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점검(지방관서, 병행점검) 및 기술지도(공단)
- (방진마스크 지원)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퀵서비스, 폐기물수집
운반 등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지원(65만여개)

'23~'24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합니다.
특히, 겨울철(12~2월)은 대륙고기압 영향(대기압에 의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눈을 볼 때도 보이지 않아서** 바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 (미세먼지) 황사, 사막먼지 등 ▲ (초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보일러 등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발령기준

미세먼지 PM 10	주의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한 때
	경보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한 때
초미세먼지 PM 2.5	주의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한 때
	경보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한 때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대기오염경보 해제령」을 따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하세요!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등 대기오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www.kma.go.kr/airquality)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기오염지수, 미세먼지농도"를 활용
마스크 착용-착용 및 교육	- 국외착업자에게 방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를 제공하여 착용토록 하세요. * 보건용마스크 중 방탄과 방수 등급은 방탄마스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수 등급은 방탄마스크가 인증받지 않는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으므로 방탄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대기환경보전법」의 미세먼지(PM10, PM2.5) 정보 발령시 해당지역의 국외착업자는 산입입원보안법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 전 국외착업자에게 미세먼지 위험성 및 예방방법을 알려주세요. - 마스크를 지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세요. *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작업 조정 및 관리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작업중지도를, 공사장 등(내외)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하세요. * 특히,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여성)을 줄이기, 정기청소 및 미세먼지 소독기 같은 작업장 안전 또는 작업장 유지 -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건강군(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호흡기질환자가입원자 등은 미리 퇴직 후 목회직업을 만족시키는 등 조치하세요. *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나 건강상태 저하, 발열호흡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목회직업 후에는 소변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개인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 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 연구기반(IARC, 2013년)

원거인(인)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폐성 또는
 호흡기계 질환(천식, 폐기능저하, 지루성폐렴,
 일산화탄소 중독 등) 발생 가능

(장기간)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곳에서
 보행하면 노출량과도 상관없이,
 호흡기에 질환, 폐암 발생 위험 증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공간에서 인증한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마스크(BF8) 이상을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Q. 방진 마스크 착용법



Q.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정보 확인 방법



「에어코리아」 어플리케이션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www.airkorea.go.kr)

F I N E D U S T

미·세·먼·지

FINE DUST ILLUSTRATION




마스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속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혈관으로 이동하여 혈액을 통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씻기 및 비염관리 철저



필수적일시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2023)」를 참고하세요.

2023-11월부간판-777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